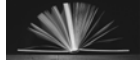


정답 및 해설



정답

1. ②	2. ⑤	3. ②	4. ④	5. ④
6. ①	7. ②	8. ③	9. ③	10. ④
11. ⑤	12. ②	13. ①	14. ⑤	15. ①
16. ②	17. ②	18. ④	19. ④	20. ③
21. ⑤	22. ②	23. ①	24. ①	25. ④
26. ①	27. ①	28. ⑤	29. ①	30. ⑤
31. ③	32. ④	33. ②	34. ③	35. ③
36. ①	37. ④	38. ④	39. ⑤	40. ⑤
41. ④	42. ③	43. ③	44. ④	45. ①
46. ④	47. ②	48. ②	49. ④	50. ⑤
51. ②	52. ①	53. ④	54. ⑤	55. ④
56. ③	57. ②	58. ③	59. ②	60. ③

듣는 내용은 www.edutopia.com 에서 다시 들을 수 있습니다.

>>>> 듣기 · 말하기 <<<<

1. 이제 방송의 일부를 들려 드립니다. 잘 듣고 물음에 답하십시오.

진행자(남): (음악) 청취자 여러분 안녕하세요? 오늘은 카프만 부인이 쓴 「광야의 샘」이라는 책에 실려 있는 이야기를 들려 드립니다.

읽는 이(여): 나는 누에를 키운 적이 있어요. 어느 날 나는 누에고치에서 누에나비들이 날아오르는 것을 보고는, 그 장면을 유심히 살펴보았죠. 고치에 생긴 작은 구멍에서 누에나비가 긴 시간을 몸부림치며 용케 빠져나오는 것을 보던 나는, 세상에 첫발을 내딛는 그 가없는 나비를 도와 주고 싶어졌어요. 그래서 누에고치 하나에 큰 구멍을 내 주었습니다. 좁은 구멍에서 나오는 다른 누에나비들이 날개가 찢기는 듯한 고통을 겪는 동안, 고치에 구멍을 내 준 나비는 쉽게 고치에서 나와 아무런 상처도 없이 아름다운 날개를 펴덕였지요. 나는 이 나비의 날갯짓을 보며 참 훌륭한 일이라고 생각했어요. 그런데 작은 구멍을 비집고 나온 나비들은 힘차게 날갯짓을 하며 공중으로 날아올랐지만, 큰 구멍으로 쉽게 나온 나비는 책상 위를 몇 번 맴돌더니 얼마 후 지쳐 쓰러졌습니다. 누에나비는 작은 구멍으로 나오려고 애쓰는 동안, 힘이 길러지고 물기가 알맞게 말라 날 수 있게 된다는 사실을 그뻘 몰랐던 거죠. (음악)

● 이야기의 교훈 추리

정답 ②

「광야의 샘」이라는 책에 나오는 ‘나’는 누에나비들이 누에고치에서 나오는 과정을 통해 ①, ③, ④, ⑤와 같은 교훈을 얻었을 것으로 추리할 수 있다. 그러나 ‘나’가 겸손하지 못하고 오만하게 행동한 것은 아니므로, ②는 이 이야기의 교훈과 거리가 멀다.

2. 이번에는 강의의 일부를 들려 드립니다. 잘 듣고 물음에 답하십시오.

여러분, 대개 어린이가 어른보다, 여자가 남자보다 목소리가 높죠? 오늘은 목소리의 높낮이에 대해서 알아봅시다.

소리는 공기의 진동이죠. 진동의 성질은 크게 두 가지 요소에 의해서 결정됩니다. 진폭과 진동수인데요, 진폭은 얼마나 크게 흔들리는가의 문제이고, 진동수는 얼마나 빠르게 흔들리는가의 문제라고 생각하면 됩니다. 진폭이 크면 소리가 크고, 진동수가 높으면 소리가 높습니다.

목소리의 높낮이도 마찬가지입니다. 진동수가 높을수록 목소리가 높죠. 어린이가 어른보다, 그리고 여성이 남성보다 목소리가 높은 것도 어린이와 여성 목소리의 진동수가 높기 때문입니다. 일반적으로, 대화할 때의 성인 남성 목소리의 진동수는 150~160헤르츠 정도이고 성인 여성은 240~250헤르츠 정도입니다.

목소리의 진동수가 이렇게 다른 주된 이유는 성대의 길이가 다르기 때문입니다. 성대가 길면 저음을 내고 성대가 짧으면 고음을 내죠. 실로폰의 긴 음판이 짧은 음판보다 더 낮은 음을 내는 것과 같은 이치입니다. 변성기 이전에는 성대의 길이가 0.8센티미터로 남 녀가 비슷하지만, 변성기를 거치면서 남성의 성대는 1.8에서 2.4센티미터까지 길어지고, 여성의 성대는 길어 봐야 1.7센티미터 정도까지밖에 자라지 않습니다. 그래서 높낮이가 달라지는 겁니다.

● 중심 화제의 파악

정답 ⑤

강의의 화제는 서두에 제시되게 마련인데, 여기에서는 ‘목소리의 높낮이’에 대해 알아보자고 했다. 그리고 이어지는 강의에서 목소리의 높낮이는 진동수에 따라 달라지며, 진동수가 다른 이유는 성대의 길이가 다르기 때문이라고 하였다. 따라서 강의의 중심 화제는 ‘목소리의 높낮이는 어떻게 결정되는가?’ 하는 것이다.

②는 잠깐 언급한 내용에 불과하며, ①, ③, ④는 정확하게 언급한 내용이 아니다.

3. 이번에는 아버지와 아들의 대화를 들려 드립니다. 잘 듣고 물음에 답하십시오.

아버지: 철수야, 아빠가 재미있는 놀이 하나 가르쳐 줄까? ‘고누’라고 하는 건데, 언제 어디서나 쉽게 즐길 수 있는 놀이야.

철수: '고누'요? 어떻게 하는 건데요?

아버지: '그림 A'를 보렴. 이게 고누판인데, 이 고누판에서 두 사람이 교대로 자기 말을 움직여서 상대방의 말을 다 잡으면 이기는 거야. 이 때 말은 기본적으로 선을 따라 상하좌우로 한 번에 한 칸씩만 움직일 수 있지. 다만, 고누판 네 귀퉁이의 동그라미 부분만은 예외란다. 동그라미가 시작되는 곳에서는 동그라미를 따라 돌면서 여러 칸을 갈 수가 있어.

철수: 어떻게 간다고요?

아버지: 예를 들어 취야겠구나. 자, '그림 A'에서 '가'로 표시한 말을 보자. 이 말을 위쪽이나 왼쪽으로 움직이면 한 칸밖에 갈 수 없는 거야. 하지만 아래쪽이나 오른쪽으로 움직이면 거기서 동그라미가 시작되기 때문에 여러 칸을 갈 수가 있는 거지. 가령 1번 자리로 움직이면, 화살표를 따라 동그라미를 돌아서 2번을 거쳐 3번까지, 또 동그라미를 돌아서 4번, 그리고 5번, 6번까지 한 번에 갈 수 있는 거야. 네가 원한다면 1번에서 6번까지 어느 자리에서든 멈출 수 있단다.

철수: 아빠, 그럼, 6번을 지나면요?

아버지: 그러면 자기편 말인 '나'에 막히니까 '나' 왼쪽에서 멈춰야지.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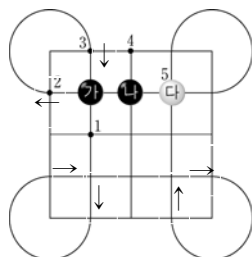
철수: '가'를 오른쪽으로 움직이면 어떻게 돼요?

아버지: '가'를 오른쪽으로 2번으로 움직이면 화살표를 따라 1번 자리를 거쳐 '다'가 있는 곳까지 갈 수 있겠지? 그럼 '다'를 잡을 수 있단다. 중요한 점은, 상대 말을 잡기 위해서는 반드시 동그라미를 먼저 돌아야만 한다는 거야. 검은 말 '나'를 오른쪽으로 한 칸 움직여서 '다'를 잡을 수는 없다는 거지. 반드시 귀퉁이의 동그라미를 돌아 움직이면서 상대방의 말을 잡는 게 이 놀이의 규칙이란다. 그럼, 철수 네가 한번 해 볼래? '그림 B'에서 검은 말 '가'와 '나'가 네 것인데, 상대편 말 '다'를 한 수만에 잡으려면 어떤 말을 어느 방향으로 움직여야 하겠니?

● 질문에 대한 답의 추리

정답 ②

'고누'의 놀이 방법에 대한 아버지의 설명을 정리해 보면, 놀이에서 말은 기본적으로 선을 따라 상하좌우로 한 번에 한 칸씩만 움직일 수 있는데, 고누판 네 귀퉁이의 동그라미 부분은 예외로 동그라미를 따라 돌면서 여러 칸을 갈 수 있다고 하였다. 또, 상대 말을 잡기 위해서는 반드시 동그라미를 먼저 돌아야만 한다고 하였다. 이런 규칙을 '그림 B'에 적용하여 상대편 말 '다'를 한 수만에 잡으려면 검은 말 '가'를 왼쪽인 '2'로 움직이면 된다. 그 이후의 말의 움직임을 나타내면 오른쪽의 그림과 같이 되어 상대방 말인 '다'를 잡을 수 있다.



- ① '가'를 '1'로 움직이면 거기에서 더 나아갈 수 없다.
- ③ '가'를 '3'으로 움직이면 자기편 말인 '나'에 막혀 원래의 '가' 자리로 돌아오게 된다.
- ⑤ 상대 말을 잡기 위해서는 반드시 동그라미를 먼저 돌아야 한다고 했다. 따라서 '나'는 '5'로 갈 수 없다.

4. 이번에는 남학생과 여학생의 대화를 들려 드립니다. 잘 듣고 물음에 답하십시오.

남: 영희야, 여기 신문 좀 봐. 우리 나라가 공적 개발 원조를 확대한다네. 너, 그게 뭔지 알아?

여: 응~ 그거. 선진국들이 개발 도상국을 돕기 위해 만든 국제적 지원 제도야. 그동안 우리 나라는 세계 10위권의 경제 대국으로 성장했는데도, 그에 걸맞은 원조를 하지 못했잖아. 이제라도 확대한다니 참 잘한 일이야.

남: 그래? (휴지) 어려운 나라를 돕는 거야 당연한 일이지. 하지만 국내 사정도 좋지 않은데, 아직은 좀 이른 게 아닐까? 수출도 어렵고 경제도 위축된 상황에서..... (휴지) 일단 우리보다 잘사는 나라보고 지원을 많이 하라고 하고, 우리는 좀 더 발전한 다음에 도와주는 게 낫지 않을까? 우리도 살기 힘든데.....

여: 아냐, 더 이상 미룰 때가 아닌 거 같아. 경제적으로 여유가 있을 때에만 남을 도울 수 있는 건 아니잖아. 이제는 우리도 인도주의 정신을 실천할 때라고 생각해. 게다가 공적 개발 원조에 적극 참여하면 우리 나라의 국제적인 위상도 높아질 거야. 물론 잘사는 나라들이 원조를 더 많이 해야겠지. 실제로 그렇기도 하고..... 그렇지만 국가 경제 규모가 우리 나라보다 훨씬 작은데도 더 적극적으로 원조를 하는 나라도 있어. 국민들의 생활 수준이 우리보다 특별히 높지도 않은데 말이야. 여기, 신문에 나와 있는 이 나라 좀 봐.

● 뒷받침할 만한 자료 찾기

정답 ④

여학생은 국민들의 생활 수준이 우리보다 특별히 높지 않은데도 공적 개발 원조에 적극적인 나라도 있다는 자신의 말을 뒷받침하려 하고 있다. 따라서 답지에 제시된 나라들 중 우리 나라보다 국민 총소득과 1인당 국민 총소득 모두가 높지 않으면서도 1인당 공적 개발 원조액은 높은 나라를 고르면 된다. 이에 해당하는 나라는 ④의 '포르투갈'이다.

[5~6] 이번에는 대담의 일부를 들려 드립니다. 잘 듣고 5번과 6번의 두 물음에 답하십시오.

진행자: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우리 노래 한마당입니다. 이번 시간에는 이 교수님을 모시고 전래 동요에 대해 말씀을 나누어 보겠습니다. 선생님, 안녕하세요?

이 교수: 예, 안녕하세요?

진행자: 선생님, 요즘 아이들은 동요보다는 대중가요에 훨씬 친숙한 것 같은데요?

이 교수: 맞습니다. 그나마 알고 있는 동요조차도 외래 동요가 대부분이죠. 가령 「여우야 여우야」, 「꼬마야 꼬마야」 같은 노래들이 여기에 해당됩니다.

진행자: 아, 그래요? 이 노래들이 외래 동요였군요. 그럼, 우리 전래 동요에는 어떤 것이 있나요?

이 교수: 우리 전래 동요에는 여러 가지가 있는데, 대개 놀이와 노래가 어우러져 있습니다. 술래잡기나 숨바꼭질을 하면서 부르는 노래가 있고요, 또한 동물이나 곤충과 놀면서 부르는 노래들도 많이 있죠. 이처럼 전래 동요에는 아이들의 구체적인 생활 모습이 잘 담겨 있습니다.

진행자: 그래요? 그런 전래 동요가 딱히 떠오르지는 않는데 왜 그렇죠?

이 교수: 실제로 지금까지 전해지는 우리 동요가 많지 않기 때문이죠. 일제 강점기와 해방 이후 근대화 과정을 거치면서 생활 문화가 크게 바뀌었고 우리 전래 동요도 많이 사라졌죠.

진행자: 안타까운 일이네요. 이 노래들을 우리가 잘 살려 나가야 할 텐데요. 그럼, 이들 전래 동요에는 또 어떤 특징이 있나요?

이 교수: 요즘 노래와 달리 아이들이 스스로 만들어 불러 선율이나 노래는 비록 단순하지만 아이들의 감수성이 잘 드러난 노래들이 많습니다. 또, 악보를 보고 배우는 것이 아니기 때문에 같은 노래라도 지역이나 부르는 사람에 따라 달리 불리죠. 또한 우리말의 리듬이 잘 드러나 있어 누구나 쉽게 배울 수가 있습니다.

진행자: 그렇군요. 그럼, 청취자들을 위해서 우리 전래 동요를 하나 들려주시죠.

이 교수: 네. 전라북도 지방에서 전래된 노래인데요, 잘 들어 보세요.

(음악) 마른 눈에 우렁 / 진 눈에 대수리 / 대수리는 꺾더라 / 꺾으면 까마구 / 까마구는 날더라 / 날면 비둘기 / 비둘기는 희더라 / 희면 영감

진행자: 선율이 참 특이하네요.

이 교수: 네, 맞습니다. 전래 동요가 대체로 그렇듯, 말하듯이 노래를 부르기 때문에 우리말이 지닌 리듬감이 잘 드러나 있죠. 특히 이 노래에는 전래 동요의 특징적인 형식 가운데 하나인 말 잇기가 잘 드러나 있습니다.

진행자: 그러니까 말꼬리를 이어 가며 부르는 노래군요. 참 재미있네요. 그럼, 이와 비슷한 노래를 하나 더 들려주시죠.

이 교수: 그러죠.

5. 세부 정보의 파악

정답 ④

교수의 발언을 주의해서 들으면 쉽게 풀 수 있는 문제이다. 교수는 전래 동요가 대체로 말하듯이 노래를 부르기 때문에 우리말이 지닌 리듬감이 잘 드러난다고 했으며(①), 대개 놀이와 노래가 어우러져 있어(②) 아이들의 생활상이 잘 담겨 있다고 했다(③). 또 악보를 보고 배우는 것이 아니기 때문에 같은 노래라도 지역이나 부르는 사람에 따라 달리 불린다고 했다(⑤). 그러나 전래 동요는 일제 강점기와 해방 이후 근대화 과정을 거치면서 많이 사라졌다고 했으므로 ④는 적절하지 않다.

6. 이어질 내용의 파악

정답 ①

진행자의 마지막 말에 주목하면 이어질 노래가 말꼬리를 이어 가며 부르는 노래라는 것을 파악할 수 있다. ①은 ‘등 굽어 못 간다 → 등 굽으면 길마 → 길마는 네 구멍 → 네 구멍은 시루 → 시루면 검지’와 같이 말꼬리를 이어 가는 형태를 띠고 있으므로 교수가 들려줄 노래로 적절하다.

>>> 쓰기, 어휘·어법 <<<<

7. 연상 내용의 적절성 판단

정답 ②

<보기>의 그림에서는 손전등이 꽃화분을 비추었을 때 그림자가 생기는 현상을 ‘나’와 타인 간의 관계에 빗대고 있다. 손전등이 꽃화분에 가까워지면 그림자가 커지는데, 이를 통해 ②와 같이 ‘상대방의 의미가 더욱 객관화된다’고 연상하는 것은 적절하지 못하다. ‘상대방이 나에게 더욱 큰 의미를 지니게 된다’고 연상하는 것이 자연스럽다.

8. 글쓰기 계획의 적절성 판단

정답 ③

쓰고자 하는 글은 ‘자전거 전용 도로 설치’를 요청하는 글이다. 문제에 제시된 표에서는 이에 대해 ‘독자 분석 → 전략 수립 → 자료 수집 → 내용 선정 → 조직 → 표현’의 과정에 걸쳐 글쓰기 계획을 구체화하고 있다.

그런데 【내용 선정】 중에서 개선 사항으로 제시하고자 하는 ‘자전거 분실 문제, 자전거 이용에 대한 안전 교육 문제’는 ‘자전거 전용 도로 설치 요청’이라는 글의 주제와 직접적인 연관성이 없다. 자전거 전용 도로를 설치한다고 해서 ‘자전거 분실 문제’가 해결되는 것은 아니며, ‘자전거 이용에 대한 안전 교육 문제’는 자전거 전용 도로 설치와 상관 없이 실시할 수 있는 것이기 때문이다.

9. 개요 수정 사항의 적절성 판단

정답 ③

개요로 보아, 쓰고자 하는 글은 ‘재래 시장의 활성화 방안’에 대해 ‘문제 제기 — 재래 시장 침체의 실태 — 재래 시장 침체의 원인 — 재래 시장 활성화 방안 — 재래 시장 활성화 대책 촉구’로 전개될 것이다. 이를 염두에 두고 각 수정 사항이 적절한지를 판단하면 된다.

15. 서술상의 특징 파악

정답 ①

지문으로 제시된 부분에서는 형 ‘응칠’이 동생 ‘응오’가 그리워 그를 찾아와서 겪게 되는 일이 중심 사건이다. 그리고 사건의 전개는 이 부분의 중심 인물인 응칠과 응오의 행동과 심리 전개를 통해 이루어진다. 즉, 지주를 찾아가 협상을 벌이다 폭력을 행사하고, 동생의 버를 훔쳐가는 범인을 잡으려는 응칠, 그리고 지난해의 처참한 경험을 되새기며 차라리 버를 बे지 않고 방치해 버리고 마침내는 자신의 버를 몰래 훔쳐가는 응오의 행동과 심리를 통해 사건이 전개되고 있는 것이다.

- ② 응칠 형제의 경험이 제시되고는 있지만, 이를 다양한 인물의 경험이라거나 삽화 형식으로 나열하고 있는 것이라고 보기는 어렵다.
- ③ 인물 묘사와 사건 전개에 대한 설명이 있기는 하지만 여기에서 작가 의식이 표면적으로 드러나 있지는 않다. 이 작품에서 작가 의식은 모순적 상황 설정을 통해 드러난다.
- ④ 인물의 외양을 묘사하는 내용은 드러나지 않는다. 다만 직접적인 표현을 통해 인물의 성격을 드러내고 있을 뿐이다.
- ⑤ 응오가 지난해의 아픈 기억을 회상하는 내용은 있지만, 그것이 서정적 분위기를 자아내고 있지는 않다.

16. 내용 이해의 적절성

정답 ②

[A]는 버를 베어 봤자 지주에게 도지를 바치고 나면 먹을 게 별로 남지 않을 것이고 그나마 빗쟁이들에게 빚을 갚고 나면 아무것도 남지 않을 상황이다. 더구나 올해는 흉작이다. 이러한 배경에 의해 극단적으로 취한 선택이 [B]와 같이 자신의 버를 훔치는 것이다(ㄱ). 그리고 이러한 모순적 상황(자신의 버를 훔쳐야 하는 상황적 아이러니)은 당시의 궁핍한 현실을 역설적으로 보여 주고 있다(ㄷ).

- ㄴ. [B]에서 갈등이 해소되는 내용은 발견할 수 없다.
- ㄹ. [A], [B] 모두 불만의 대상은 ‘사회(현실)’이다.

17. 작품 감상의 적절성 평가

정답 ②

본문의 내용을 대략적으로만 파악한 학생들이 쉽게 틀릴 수 있는 문제이다. ‘응칠’은 동생이 그리워 찾아온 것이다. 그리고 동생의 논에서 벼가 없어지자 전과 전력을 갖고 있던 자신에게 혐의가 지워질 것이 두려워 직접 도둑을 잡으려는 것이다.

- ① 동생을 먼 곳에서 찾아온 것(ㄱ), 동생을 위해 지주를 만나는 것(ㄴ) 등을 통해 동생을 생각하는 응칠의 마음을 알 수 있다.
- ③ 지주와 직접 담판을 지으려 하고 그 와중에 지주를 폭행하는 것(ㄴ, ㄷ), 그리고 겁 없이 정체 불명의 도적에게 달려드는 모습(ㄹ) 등을 통해 응칠의 성격을 알 수 있다.
- ⑤ 응칠이 동생 논에 벼 도둑을 잡으려는 것은 자칫 그 혐의가 자신에게 씌워질지 모르기 때문이다.

18. 문맥적 의미 이해

정답 ④

㉞은 ‘응칠’이 벼 도둑을 잡고 보니 동생임을 알고 그 어이없음에 황망해하고, ‘응오’는 자신의 비참함에 울분과 비애를 느끼는 상황이다. 두 형제 간에 경계심은 드러나지 않는다.

- ① ‘응오’가 진실한 농군임을 감안할 때, 농부가 자신의 버를 베지 않으려 한다는 것은 단순한 의도가 아님을 알 수 있다.
- ② 아무것도 남지 않았다는 점에서 쓸쓸함이, ‘응오’의 처지가 딱하다는 점에서 안타까움이 느껴진다.
- ③ 동생의 처지가 안타까워 문제를 해결하려던 상황에 돌연 동생의 눈에 있던 벼가 없어지는 새로운 문제가 발생함으로써, 사건이 의외의 방향으로 전개될 것임을 예측할 수 있다.

19. 어휘의 의미 파악

정답 ④

④의 ‘모로’는 ‘비껴서’, ‘대각선으로’의 의미이다. ‘고개를 모로 흔든다’는 것은 상대의 제안이나 부탁에 대해 ‘응해 주기 곤란함.’, 또는 ‘거절’의 의미를 담고 있다. 따라서 ‘거칠게’와는 그 의미가 다르다.

>>>> 읽기 / 비문학(사회) <<<<

[20~23]

‘제3자 효과’의 개념과 적용 문제

대중 매체가 수용자에게 미치는 영향과 관련한 ‘제3자 효과’ 이론의 개념을 밝히고 그 의의와 적용 문제에 대해 다루고 있는 글이다. 제3자 효과는 사회적으로 바람직한 내용을 전달할 때보다 유해한 내용을 전달할 때 그 영향력이 크게 나타난다. 이 이론은 매체에 대한 사람들의 차별적 인식 및 그에 따른 행동 성향을 조사한 이론이라는 점에서 그 의의가 크다.

20. 문단의 중심 화제 파악

정답 ③

(다)는 제3자 효과가 사회적으로 바람직한 내용을 전달할 때보다 유해한 내용을 전달할 때 더 크게 나타난다는 내용을 다루고 있다. 따라서 (다)의 중심 화제는 제3자 효과가 나타나는 양상이라고 볼 수 있다.

21. 특정 정보의 이해

정답 ⑤

제3자 효과의 핵심은 대중 매체의 영향력이 자신보다 다른 사람들에게서 더 크게 나타나리라고 믿는 경향이 있다는 것이다. 따라서 제시된 답지들 중 자신보다 타인이 더 많은 영향을 받는다는 생각이 드러난 그래프를 찾아야 한다. 이에 해당하는 것은 ⑤이다.

22. 문맥적 의미의 파악

정답 ②

㉟의 ‘얼다’는 어떤 사물이나 상황으로부터 새로운 생각을 ‘구하거나 찾아서 가지다.’라는 의미로 쓰였다. 이와 유사한 의미로 쓰인 것은 ②이다.

- ① 돈을 빌리다.
- ③ 병을 앓게 되다.
- ④ 권리나 결과·재산 따위를 차지하거나 획득하다.
- ⑤ 사위, 며느리, 자식, 남편, 아내 등을 맞다.

23. 입장의 파악 (정답) ①

㉠의 입장은 제3자 효과 이론의 영향력을 크게 생각하는 입장이다. 따라서 이러한 입장을 지닌 사람들은 ②~⑤와 같은 진술을 할 수 있다. 그러나 ①은 사회적으로 유해한 내용의 영향력에 대한 우려가 실제보다 과장되었다고 생각하는 입장으로, ㉠의 입장과는 반대되는 내용이다.

>>>> 읽기 / 비문학(기술) <<<<

[24~27]

산업 분류 체계의 종류와 의의

산업을 분류하는 다양한 체계와 기준을 소개하고 그에 대한 전망을 제시한 설명문이다. 1~5문단에서는 산업 분류 체계의 종류를 설명하고 있다. 그리고 6문단에서 향후 산업의 변화를 예측하고, 그에 따른 산업 분류 체계와 기준의 신축적이고 실질적인 접근의 필요성을 진술하고 있다.

24. 세부 내용의 이해 (정답) ①

1문단을 보면, 클라크의 산업 분류는 원료의 채취와 생산, 가공, 유통이라는 단계적 성격에 따라 이루어진다고 하였다. 즉, 단계별로 1차, 2차, 3차 산업으로 분류한 것이다.

25. 다른 상황에서의 적용 (정답) ④

문제를 다시 정리하면, <보기>에서 새로운 학문의 명칭을 그대로 학과 명칭에 사용했다는 점을 근거로, 지문에서 설명한 기준이나 관점 중 그와 유사한 것을 찾는 문제이다. 4문단을 보면, 이는 새로운 기술 영역의 출현이 신속한 실용화의 요구 때문에 그대로 새로운 산업으로 형성되는 모습과 유사하다. 그리고 이것은 기술 영역을 중시하는 관점이라 할 수 있다.

26. 판단의 근거 추리 (정답) ①

6문단을 보면 글쓴이는 향후 기술의 혁신이 가속화되면 산업 현황에 많은 변화가 올 것이며, 그에 따라 기존의 산업 분류 기준이나 체계도 신축적이고 실질적이 되어야 한다고 주장하고 있다. 따라서 글쓴이는 기존의 분류로 파악하기 힘든 산업의 실상을 반영하기 위해 ㉠과 같은 판단이 필요함을 말하고 있다.

27. 어휘의 의미 관계 파악 (정답) ①

㉠과 ㉡는 '반의 관계'에 있는 단어이다. 반의 관계의 두 단어는 오직 한 개의 의미 요소만 다르고 나머지의

미 요소들은 모두 공통된다. ②~⑤의 단어들은 공통된 의미 요소들 가운데 방향성만 대립된다. 그러나 ①의 경우, '방향성'과 '과정성' 등이 다르며 더구나 대립적이지 않다. 따라서 '태어나다'와 '자라다'는 반의 관계의 단어가 아니다.

>>>> 읽기 / 문학(현대시) <<<<

[28~32]

(가) 이육사, 「교목(喬木)」

일제 강점기 상황에서 자신의 저항 의지를 교목에 대입하여 표현한 작품이다. 부정적인 상황 속에서도 좌절하지 않고 자신의 의지를 굳게 지켜 나가겠다는 다짐이 담겨 있다.

(나) 신석정, 「들길에 서서」

현실은 '밤'처럼 어둡고 부정적이지만 자신은 그러한 속에서도 절망하지 않고 이상향을 추구하겠다는 의지를 표현하고 있다.

(다) 김종길, 「고고(孤高)」

제목에서 알 수 있듯이 고고(孤高: 세상 일에 초연하여 홀로 고상하다.)한 삶의 지향을 담은 작품이다. 시인은 고고한 상태는 쉽게 변질될 수 있기 때문에 겨울 아침처럼 차가운 긴장의 상태를 놓지 않아야 한다고 하면서 고고한 삶의 자세와 정신 세계에 대한 지향을 표현하고 있다.

28. 작품들간의 공통점 파악 (정답) ⑤

(가)의 화자는 일제 강점기라는 암울한 상황 속에서 '호수 속 깊이 거꾸러져 차마 바람도 흔들진 못해라'라고 하며 강한 저항의 의지를 표현하고 있다. (나)의 화자도 '뻘에 저리도록 슬픈 생활' 가운데서도 '푸른 별'이라는 이상향을 추구하겠다는 의지를 표현하고 있다. (다)에서도 화자는 차가운 긴장을 통해 고고한 삶의 자세와 정신 세계를 지향하고 있다.

29. 표현상의 공통적인 특징 파악 (정답) ①

(가)와 (나)에는 '~듯이'라는 비유적 표현법이 나타난다. 또한, (가)의 '낮은 거미집'은 현실의 어려움을, '바람'은 시련을 상징하며, (나)의 '푸른 별'은 이상향을 상징한다.
 ② (가)와 (나)에서는 어조의 변화가 나타나지 않았다.
 ③ (나)에서는 '푸른'이라는 색채어가 반복적으로 사용되어 정서를 고조시키고 있으나, (가)에서는 반복되는 색채어가 없다.

30. 자료를 통한 시적 의미 이해 (정답) ⑤

'바람도 흔들진 못해라'는 어떠한 시련에도 굴복하지 않고 굳건하게 자신의 의지를 지키겠다는 표현으로, '바람'은 시련을 상징한다.

③ ‘낮은 거미집을 휘두르고’는 화자의 힘든 처지를 뜻한다. ‘낮은 거미집’은 화자 의지를 방해하는 상황으로 이해할 수 있다.

31. 조건에 따른 작품의 감상 (정답) ③

(나)의 시상은 삶의 숭고함(A) → 숭고함의 확인(B) → 이상향의 추구(C)로 전개되고 있다. A → B → C로 가면서 앞의 내용이 점점 더 응축되는 것은 아니다.

32. 작품 감상의 적절성 판단 (정답) ④

‘윈 산을 뒤덮은 적설(積雪)’은 눈이 산을 온통 하얗게 뒤덮은 상태를 말하는 것으로, 화자는 이 상태는 고고한 상태가 아니라고 말하고 있다. 화자가 이야기하는 고고한 상태란 조금만 햇볕을 받아도 녹을 수 있을 정도로 높은 봉우리에만 가볍게 눈이 쌓인 것을 말한다. 따라서 ‘윈 산을 뒤덮은 적설’을 세속적인 것에서 벗어나 홀로 존재하는 ‘고고’의 이미지로 해석한 ④는 적절한 감상이 아니다.

>>>> 읽기 / 비문학(인문) <<<<

[33~36]

지식의 유형과 형성

인식론에서 말하는 지식의 유형에 대해 다루고 있는 글이다. 지식의 유형은 ‘안다’는 말의 다양한 용례를 통해 드러나기도 한다. ‘안다’는 말은 능력의 소유를 의미하기도 하고 정보의 소유를 의미하기도 하는데, 이를 각각 ‘절차적 지식’과 ‘표상적 지식’이라고 부른다. 이 글은 이러한 지식의 유형을 대조의 방식을 통해 설명하고 있다.

33. 정보의 개괄적 확인 (정답) ②

‘절차적 지식’이란 지식의 유형 중 능력의 소유를 의미하는 것이다. 이러한 절차적 지식을 갖기 위해서는 훈련을 통해 몸과 마음을 특정한 방식으로 조직화해야 한다고 했다. 그러나 이러한 절차적 지식이 다른 지식 유형의 기반이 된다는 내용은 나타나 있지 않다.

34. 구체적 상황의 적용 (정답) ③

‘표상적 지식’에서의 ‘안다’는 정보의 소유를 의미하는 것이다. 따라서 주어진 답지 중 정보의 소유를 나타내는 것이 아닌 ‘안다’를 찾아야 한다. ③의 ‘안다’는 개를 많이 다루어 본 경험에 의해 잘 다룰 줄 ‘안다’는 것이므로 정보의 소유와는 다르며, 이것은 오히려 능력의 소유를 의미하는 ‘절차적 지식’에 해당한다.

35. 전제의 추리 (정답) ③

㉠은 경험을 통해 만난 대상들로부터 귀납 추리를 통해 일반 법칙에 도달할 수 있다는 내용이며, ㉡은 일반 법칙에 대한 지식도 경험적 지식이라는 내용이다. 그런

데 ㉠에서 얻어낸 일반 법칙이 ㉡에서처럼 경험적 지식이 되려면, ㉠에서 일반 법칙이 되기 위해 거쳤던 귀납 추리라는 방식이 경험을 통해 만난 대상들 즉, 경험적 지식의 성격을 바꾸지 않아야만 성립할 수 있다. 따라서 ㉠으로부터 ㉡을 도출하는 과정에서 생략된 전제는 ‘귀납 추리는 지식의 경험적 성격을 바꾸지 않는다.’임을 알 수 있다.

① 귀납 추리를 통해 일반 법칙에 도달하는 것이기 때문에 적절하지 않다.

② 귀납 추리는 자연에 대한 일반 법칙을 발견하게 해 줄 뿐 자연에 대한 지식을 확장해 주는 것이 아니다.

④ 귀납 추리를 거친 일반 법칙이 그대로 경험적 지식이라고 했으므로, 이를 넘어서도록 한다는 것으로 적절하지 않다.

⑤ 귀납 추리에 대한 적절한 설명이기는 하지만 ㉠으로부터 ㉡을 도출하는 과정에서 생략된 전제는 아니다.

36. 바뀐 쓰기에 적절한 말 (정답) ①

④의 ‘드러나다’는 ‘가려 있거나 보이지 않던 것이 보이게 되다.’의 의미이다. 그런데 ‘천명(闡明)되다’의 ‘천명’은 ‘진리나 사실, 입장 따위를 드러내어 밝힘.’의 뜻을 지닌 말로서 ‘드러나다’의 또 다른 뜻인 ‘알려지지 않은 사실이 널리 밝혀지다.’의 뜻이다. 따라서 ④와는 바꾸어 쓸 수 없다.

>>>> 읽기 / 비문학(예술) <<<<

[37~40]

대중 문화 시대의 팝 아트

미술이 대중 문화를 비판하는 여러 가지 방식에 대해 보여 주고 있는 글이다. 그저 전면적인 비난과 거부로는 대중 매체의 부정적 측면을 폭로하거나 비판하려는 목적을 제대로 달성하기 어렵기 때문에 많은 미술가들은 이를 고민해 왔다. 그 중 근본주의 화가들은 자신들의 그러한 목적을 극단으로 추구한 나머지 대상의 이미지를 제거해 버렸는데, 이 과정 속에서 그림을 그리는 과정과 방식 그 자체가 회화의 주체가 되었다. 그러나 이는 회화의 빈곤을 보여 주는 텅 빈 캔버스만을 남겼다. 이에 비해 비교적 대중 매체를 성공적으로 비판했다고 볼 수 있는 경우로 ‘팝 아트’를 들고 있는데, ‘팝 아트’는 회화의 내용은 포기하지 않으면서도 대중 문화의 이미지를 차용하면서 이를 비판하는 경향을 띤다. 이를 잘 보여 주는 예로 리히텐슈타인의 「파광!」을 들고 있다.

37. 정보의 개괄적 확인 (정답) ④

3문단의 ‘미국의 팝 아트는 대중 문화에 대한 부정도 긍정도 아닌 애매한 태도나 낙관주의를 보여’ 준다고 한 부분에서 미국의 팝 아트는 대중 문화에 대해 다양한 태도를 보였음을 알 수 있다.

① 1문단에서 그저 전면적인 비난과 거부로는 대중 매

체의 부정적 측면을 폭로하거나 비판하려는 목적을 제대로 달성하기 어렵다고 했다.

- ② 2문단을 보면 근본주의 화가들은 자신들의 목표를 극단으로 추구한 나머지 회화에서 대상의 이미지를 제거해 버림으로써 결국 회화의 빈곤을 보여 주는 텅 빈 캔버스만을 남겼다고 했다.
- ③ 3문단에서 영국의 팝 아트는 대중 문화의 산물들을 적극적으로 이용하면서 그 속에서 대중 매체를 비판했다고 했다. 이는 오히려 대중 문화에 대해 다양한 태도를 보이는 미국의 팝 아트에 비해 비판적 시각이 강했다고 볼 수 있다.
- ④ 리히텐슈타인의 미술은 회화의 내용을 포기하지 않으면서도 대중 매체를 성공적으로 비판한 경우에 해당하는 예로 제시되었다. 따라서 회화의 빈곤만을 보여 준 근본주의 회화와는 거리가 멀다.

38. 정보 간의 관계 파악

정답 ④

3문단을 보면 ㉠의 ‘근본주의 회화’는 그림을 그리는 과정과 방식을 중요하게 생각하고, 그 자체를 회화의 주제로 삼았다고 했다. 또한 4문단을 보면 ㉡의 「파광!」은 만화의 재현 방식 자체를 주제로 삼았다고 했다.

- ① ㉠은 대상의 이미지가 담겨 있는 작품이지만, ㉡은 대상의 이미지를 제거했다고 했다.
- ② ㉡은 반전(反戰)을 내용으로 하고 있는 것이 맞지만, ㉠은 대중 문화에 대한 비판을 내용으로 하고 있다.
- ③ ㉠은 대상의 이미지가 사라진 추상이 맞으나, ㉡은 회화의 내용을 포기하지 않으면서도 대중 매체를 성공적으로 비판한 예이므로 대상의 이미지가 사라진 것이 아니다.
- ④ ㉡은 대중 문화의 이미지를 차용하여 그것을 맥락이 다른 이미지 속에 재배치함으로써 생겨나는 새로운 의미에 주목하였으며, ㉠은 만화의 재현 방식을 주제로 삼은 작품이다.

39. 다른 상황에서의 적용

정답 ⑤

<보기>의 사례에서는 영국의 정치가 휴 게이츠겔의 확대된 얼굴 사진의 일부를 공포 영화 「오페라의 유령」에 등장하는 유령의 모습처럼 바꾸었다는 점에서 대중 문화의 이미지를 차용(㉠)하고 맥락이 다른 이미지 속에 재배치(㉡)하였음을 알 수 있다. 또한 이러한 방식을 통해 이 정치가가 비인간적 면모를 감추고 있다는 메시지를 전하려 함으로써 생겨나는 새로운 의미에 주목하였고(㉢), 그를 비판하려는 의도를 표출(㉣)하였음을 알 수 있다. 그러나 <보기>의 사례에서는 대중 문화의 이미지를 차용하기만 했을 뿐 이를 비판하려는 의도는 찾아볼 수 없다(㉤).

40. 판단의 근거 파악

정답 ⑤

본문의 마지막 부분을 보면, 관람객들이 「파광!」의

폭력적인 내용과 명랑한 방법 간의 모순이 섬뜩한 것임을 알아차릴 때 비로소 작가의 비판적인 의도가 성취될 수 있다고 했다. 따라서 관람객의 입장에서 「파광!」이 대중 문화에 대한 성공적인 비판이라고 판단할 수 있으려면 ⑤와 같은 근거가 있어야 함을 알 수 있다.

- ① 명랑한 색감은 만화적 재현 방식의 하나이므로 적절하지 않다.
- ②, ③ 내용과 형식 간의 모순이 근거로 제시되어야 하는데, 형식적인 면에서의 충돌이나 불협화음만을 지적하고 있으므로 적절하지 않다.
- ④ 내용과 형식 간의 모순이 근거로 제시되어야 하는데, 내용적인 면에서의 불일치만을 지적하고 있으므로 적절하지 않다.

>>>> 읽기 / 문학(고전 신문) <<<<

[41~45]

작자 미상, 「적벽가」

‘적벽가’는 판소리 열두 마당 가운데 하나이다. 다른 판소리와 달리 중국의 「삼국지연의」를 바탕으로 만들었다. 중심 내용은 ‘적벽 대전(赤壁大戰)’이지만, 제갈량을 군사(軍師)로 쓰기 위해 ‘삼고초려’하는 대목 등도 포함되어 있다. 지문으로 제시된 부분은 위나라 조조(曹操)가 백만 대군을 이끌고 손권과 유비의 연합군과 대치하여 싸우다가 대패하여 부하들과 도망가는 장면이다. 조조의 어리석음을 풍자하는 해학적인 내용이 두드러진 부분이다. 제시된 내용 다음에는, 도망가는 조조를 관우(關羽)가 화용도에서 잡았으나 죽이지 않고 너그러운 길을 터 주어 달아나게 하는 내용이 이어진다.

41. 세부 내용의 이해

정답 ④

(라)에서 조조는 싸움에서 패하여 도망을 하는 와중에도 오나라 장수 주유와 촉나라의 군사 제갈량을 비웃고 있다. 이는 자신이 처한 상황은 안중에도 없이 허세를 부리는 태도를 버리지 않고 있음을 보여 준다.

42. 장면의 성격 파악

정답 ③

(나)에서, 조조와 정욱 사이에 갈등 관계가 형성되었다고 하더라도 그것이 해소되는 내용은 없다. 어처구니없는 말과 행동을 하는 조조와 그에 대해 한심하다는 듯 대하는 정욱을 통해 해학적인 장면을 그리고 있다. 한편, (마)에는 갈등 관계라고 할 만한 인물이 제시되어 있지 않다. 단지 새롭게 등장하는 조자룡의 용맹한 모습을 과장하여 표현하고 있다.

43. 진술의 의미와 기능 파악

정답 ③

㉠은 작가의 반어적 표현이 아니라, 상황 판단을 제대로 못 하고 주유와 제갈량을 비웃는 조조의 모습을 회화화한 것이다. 또한 이러한 장면은 상황의 반전을 암

시하는 기능을 하고 있다기보다는 오히려 상황의 심각성을 극대화시키는 작용을 한다고 볼 수 있다. 이어지는 내용에서 조조 일행은 더 큰 곤경에 처하게 되기 때문이다.

- ① ㉠은 정욱(주변 인물)을 통해 조조(중심 인물)의 겁 많음과 소심함을 보여 주는 기능을 한다.
- ② ㉡은 작가가 직접 작품 속에 개입하여 대상과의 거리를 좁힘으로써 독자들의 공감을 유도하고 있다.

44. 다른 상황에서의 적용 정답 ④

(다)에서, 까마귀의 울음소리를 통해 묘사하고 있는 부분은 ‘들판 대로를 마다하고 심산 숲 속에 ~’이다. 이는 넓은 길로 가지 못하고 숲 속 좁은 길로 숨어 가고 있는 조조를 상징한 것이다.

45. 상황에 적합한 속담 파악 정답 ①

(마)에서, 조조는 조자룡의 공격을 받아 다시 한번 위협에 처하게 된다. 즉, 싸움에 패하여 가까스로 도망을 치던 조조가 겨우 위험에서 벗어났는가 싶은 상황에 다시 맞게 되는 위험인 것이다. 이에 적합한 속담으로는 ‘한 가지 위험에서 벗어나니 또 새로운 위험이나 난관에 부딪치게 됨.’을 비유적으로 의미하는 ①이 가장 적절하다.

>>>> 읽기 / 비문학(과학) <<<<

[46~50]

과학적 진실이란 무엇인가

46. 핵심 내용의 파악 정답 ④

이 글은 화성의 ‘운하’에 대한 가설이 오랫동안 인정된 이유를 밝히면서 과학적 진실이란 무엇인가에 대해 생각하게 해 준다. 분명히 설득력 있고, 인정받아야만 할 자료가 과학자들 사이의 권위에 의해 부정되고 오히려 권위 있는 사람이 제작했다는 이유만으로 부정확한 자료가 채택되는 상황을 통해 과학적인 진실이 권위에 의해 왜곡된 과학사를 조명하고 있는 것이다. 따라서 이 글의 제목을 정한다면 과학적 진실의 왜곡이라는 과학사의 어두운 면과 그 사례를 종합하여 보여 줄 수 있는 ④가 가장 적절하다.

47. 세부 내용의 확인 정답 ②

지리학의 방식대로 채색한 것은 스키아파렐리의 화성 지도이며, 그로 인해 호소력이 강했다고 5문단에서 밝히고 있다. 따라서 ②는 ㉠의 근거가 될 수 없다.

그린은 대기가 청명한 섬(⑤)에서 13인치 반사 망원경(③)을 통해 보이는 대로 화성의 모습을 스케치했으며(①), 다른 천문 학자들의 관측 결과까지 반영하여(④) 화성 지도를 제작하였다고 했다. 그에 반해 스키아파렐리는 대기의 청명도가 떨어지는 자신의 천문대에

서 관측하였으며, 배율이 상대적으로 낮은 8인치 반사 망원경을 사용하여 짧은 시간 동안 특징만 스케치하고 기억을 토대로 지도를 제작하였다고 밝히고 있다.

48. 세부 내용의 적용 정답 ②

이 글의 사례는 ‘화성 운하’의 존재에 대한 논란을 다루고 있으며, <보기>는 천상계의 완전성 개념에 대한 논란을 다루고 있다. 이 글의 사례는 ‘천상계의 완전성 개념’에 대한 논의가 아니라는 점에서 정답은 ②이다.

49. 반응의 적절성 판단 정답 ④

이 글에서는 권위자의 견해를 쉽게 부정하지 못하는 과학계의 문제점을 이야기하고 있다. 즉, 새로운 이론이 기존의 권위와 부딪힐 때 발생하는 문제에 대해 논하고 있는 것이다. 이러한 논쟁의 원인은 기존의 권위를 옹호하고자 하는 과학자들과 새로운 과학자가 제시한 이론 사이의 인식 차이 때문에 발생하는 것으로, 과학자들 사이의 인식 차이라고 볼 수 있다.

- ③ 스키아파렐리의 지도는 지리학의 채색법을 사용하여 그린 것이 그린 지도보다 호소력이 강했다고 했다. 따라서 표현 방식 때문에 주장의 설득력에 차이가 생길 수 있다고 볼 수 있다.

50. 상황에 적절한 단어의 선택 정답 ⑤

㉠에서 ‘운하 가설 옹호자들’은 명확한 관찰 결과에 대해서 말도 안 되는 엉뚱한 ‘해명’을 하고 있다. 따라서 ㉠과 바꾸어 쓸 수 있는 말로는 ‘어처구니없게도’가 가장 잘 어울린다. ‘어처구니없다’는 ‘일이 너무 뜻밖이어서 기가 막히다’란 뜻이다.

>>>> 읽기 / 문학(고전 시가 + 수필 복합) <<<<

[51~56]

(가) 계량, 「이화우(梨花雨) 흠뻑릴 제」

이별한 입에 대한 그리움을 표현한 시이다. 헤어짐이 자신을 생각하고 있기를 바라는 심정 속에 시적 화자의 그리움의 깊이를 느낄 수 있다.

(나) 조위, 「만분가(萬憤歌)」

임과 이별한 상황 설정을 통해 유배당한 자신의 처지를 표현한 유배 가사이다. 일편단심으로 임(임금)을 그리워하는 화자를 통해 자신의 신세를 한탄하고 있는 것이다.

(다) 양주동, 「질화로」

질화로를 매개로 하여 ‘이웃’, ‘옛마을’, ‘가족’ 등 과거 기억들을 끄집어 내고 있다. 시종일관 따뜻한 목소리로 추억과 그리움을 전하고 있다.

51. 작품들간의 공통점 파악 정답 ②

(가)와 (나)는 이별한 입에 대한 그리움을 표현하고 있

고, (다)는 질화소가 있던 과거의 모습을 그리워하고 있다. 따라서 (가)~(다)의 공통점으로는 대상에 대한 그리움의 정서가 드러나 있다는 ②가 가장 적절하다.

④ (가)~(다)의 화자는 모두 현실을 부정적으로 바라보고 있지만 그에 대해 비판적인 태도를 취하기보다 '그리워하는' 소극적인 태도로 일관하고 있다.

52. 표현상의 공통적 특징 파악 [정답] ①

(가)에서는 화사한 봄의 이미지를 가진 '이화우(梨花雨)'와 쓸쓸한 이미지의 가을 바람에 지는 낙엽(추풍낙엽)을 통해 시간의 변화와 분위기의 변화를 표현하고 있고, (나)에서는 쓸쓸한 이미지의 '가을 달 밝은 밤'과 차가운 이미지의 겨울 눈 속(설중)이라는 시어를 활용하여 자신의 처지를 더욱 구슬프게 드러내는 효과를 얻고 있다.

53. 제재의 의미 파악 [정답] ④

(가)의 '꿈'은 임에 대한 사랑을 확인하고자 하는 꿈이고, (나)의 '추억'은 어린 시절에 대한 것이다. 따라서 (가)의 '꿈'은 임이라는 하나의 대상에 집중되지만, (나)의 '추억'은 아이를 변호하는 늙은 부부와 같은 인정스런 모습이 나 한겨울 여러 사람들이 어울리는 옛 마을, 어머니의 사랑을 느낄 수 있는 찌개 그릇, 돌아가신 아버지 등 다양한 대상과 연결된다.

54. 시어의 의미 이해 [정답] ⑤

'침변에 시드는'은 화자가 임에 대한 그리움을 표현하기 위해 가정한 상황이다. 즉, 임에 대한 그리움이 너무 크기에 임의 집 창 밖에 매화로 피어 임이 주무실 때 임의 베갯머리에라도 지고 싶다는 소망을 표현한 것이다.

55. 감상의 적절성 평가 [정답] ④

- ㉠은 여러 사람들이 모여 즐겁게 지내는 동안 긴 겨울밤이 쉽게 지나갔다는 뜻이다.
- ② 임이 화자를 알아보았으면 좋겠다는 기대와 알아보지 못할 수도 있다는 우려가 교차되어 있는 표현이다.
- ③ 아들이 글을 읽는다는 것에 대한 대견함의 표현이자, 아들에 대한 사랑의 표현이다.
- ⑤ 아버지의 담뱃대 터시는 소리와 고서 읽으시는 소리 등 아버지와 관련된 소리가 그쳤다는 것으로 보아, 아버지가 돌아가셨음을 추리할 수 있다.

56. 소재의 기능 이해 [정답] ③

(다)의 화자는 어린 시절 정감 어린 풍경을 떠올리고 있다. 어린 시절의 풍경은 질화로를 매개로 하여 이웃집 늙은 부부의 이야기나, 사랑의 풍경, 부모님에 대한 추억 등 다양한 이미지로 형상화되어 글 전체의 통일감을 부여하고 있다. 그러나 이 글에서 '가난'에 대한 단서는 찾을 수 없으므로 ③은 적절하지 않다.

>>>> 읽기 / 비문학(언어) <<<<

[57~60]

소수 언어의 소멸

사라질 위기에 처한 소수 언어의 현실을 제시하며, 언어가 사라지는 원인을 밝히고, 이어서 사라지는 언어에 관심을 가져야 하는 이유에 대해 언급하고 있다.

57. 세부 내용의 확인 [정답] ②

2문단에서 언어 소멸의 원인으로 토착 언어 사용자들의 거주지가 파괴된 것을 언급하였다. 따라서 ②의 진술은 원인과 결과가 뒤바뀐 것이다. 즉, 토착 언어 사용자들의 거주지가 파괴됨으로써 언어의 소멸이 가속화된 것이다.

58. 글쓰기 전략의 확인 [정답] ③

1문단에서 소개된 '한 언어학자'의 주장은 현상을 명확하게 보여 주기 위한 것이다. 언어 소멸의 대책에 대한 전문가의 견해는 이 글에 나타나지 않는다.

- ① 1문단에서 몇 %, 몇 개 등 소멸해 가고 있는 언어의 구체적인 수치를 제시하고 있다.
- ② 3문단에서 소멸되는 언어를 보존해야 하는가에 대한 문제를 다양한 관점에서 소개하고 있다.
- ④ 4문단에서 질의와 답변의 방식을 활용하여 위협에 처한 언어에 관심을 가져야 하는 이유를 제시하고 있다.
- ⑤ 1문단 말미에 세계 언어 수의 90%에 달하는 언어가 21세기가 끝나기 전에 소멸할 수 있다고 언급하면서 문제의 심각성을 드러내고 있다.

59. 논지에 따른 자료의 해석 [정답] ②

이 글은 언어의 다양성을 지키기 위해 사라져 가는 언어를 지켜야 한다는 입장을 보이고 있다. 그리고 <보기>는 여러 언어에서 1인칭 복수 표현이 다름을 보여 주고 있는데, 이는 언어의 다양성과 연결된다. 따라서 이 글의 논지에 따라 <보기>를 해석한다면, 언어의 다양성이 갖는 이점에 대해 설명할 수 있을 것이다. 4문단에서 '언어적 다양성은 인류가 지닌 언어 능력의 범위를 보여 준다'에서 정답이 ②임을 확인할 수 있다.

60. 문맥적 의미의 유사성 파악 [정답] ③

①의 '성인들만 사용하는 언어'는 소멸 위기의 언어라고 볼 수 있다. 이것은 곧 ㉠의 '세계 언어 수의 90%에 달하는 그 밖의 언어'에 해당한다. ㉡의 '토착 언어' 또한 주류 언어의 선택으로 인해 소멸 위험에 처한 언어에 해당한다. 그러나 ㉢의 '공식어'는 소멸 위기에서 완전히 벗어난 상태의 언어이므로, 나머지 넷과 문맥상의 의미가 다르다.